



Analyst 이달미 · 02-3773-9952 · talmi@sk.com

Issue Comment

- ✓ '세노바메이트' 유럽 아벨 테라퓨틱스에 기술수출
- ✓ 입증된 임상 데이터로 유리한 기술수출 조건
- ✓ 제약/바이오 투자심리에 긍정적일 전망

SK 바이오파,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6,000 억원에 기술수출

- SK 바이오파는 2월 14일 자체개발 신약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를 스위스 아벨 테라퓨틱스(Arvelle Therapeutics)에 유럽 32개국 판매를 목표로 기술수출함.
- 총 마일스톤은 5억 3,000만 달러(약 6,000억 원)이며 선계약금이 1억 달러(2월 중으로 인식 예정)로 반환조건이 없고 시판 이후 로열티도 여타 신약대비 높은 수준이 예상됨. 나머지 마일스톤은 유럽 시판 이후 받을 예정. 향후 아벨이 상장했을 때 아벨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추가로 부여됨.
- 세노바메이트는 이미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치고 2018년 11월 미국 FDA에 신약허가 신청에 들어간 상태. 따라서 향후 유럽에서의 시판 성공률도 높기 때문에 기술수출 계약 조건이 좋았던 것으로 판단됨.
- 스위스 아벨 테라퓨틱스는 미국 노바퀘스트 캐피털 매니지먼트(Nova Quest Capital Management)와 유럽 LSP(Life Science Partners) 등의 헬스케어 투자사들이 합작하여 이번 세노바메이트 인수를 위해 설립된 회사임. 향후 뇌전증 치료제에 집중할 전망이며 세노바메이트 인수를 위한 자금은 확보한 상태.
- 아벨은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유럽 EMA에 NDA를 제출할 예정임.
- 글로벌 뇌전증 치료제 시장은 7조 원 수준인데 그 중에서 5조 원은 미국이 점유하고 있으며 유럽이 1조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뇌전증 시장의 세일즈 조직이 어렵지 않아 인프라구축이 상대적으로 쉬워 SK 바이오파가 직접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 여러 국가에 사업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함. 따라서 이번 기술수출은 유럽 파트너사를 확보하게 된 효과도 있음.
- SK 바이오파의 이번 유럽 기술수출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높은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 결과라 판단되어 제약/바이오 산업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당사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함.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